

1분기 가계빚 1765兆 '증가폭 최대' 주택자금 · 주식투자 수요 '영끌 지속'

파이낸셜뉴스

올해 1분기 가계 빚 1765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 대비 37.6조원 증가. 주택자금 수요, 소비위축 완화에 따른 판매신용 증가에 기인
업권별로는 기타금융기관의 증가폭이 10.3조원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예금은행, 비은행예금기관의 증가폭은 전분기 말 대비 각각 18.7조원, 5.6조원으로 축소

금융감원, 디스커버리 판매 기업銀에 원금 40~80% 배상 권고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를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 60%, 64%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조위는 나머지 분쟁 건에 대해서도 40~80%범위 내에서 자율배상토록 권고

'본인가 지연' 토스뱅크..."3분기내 출범" 전략 수정

뉴스1

인터넷전문은행 3호 토스뱅크가 목표로 하는 출범 시점이 올 7월에서 3분기(7~9월) 내로 미뤄졌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토스뱅크 본인가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토스뱅크가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르게 핀테크 회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첫번째 은행인 만큼 이전보다 더 점검할 게 많아 금융당국의 본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

인니 투자장관 회담에 금융지주 수장 총출동

서울경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은행, 농협금융지주의 회장들은 서울에서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 · 투자조정부 장관과 회동
금융사의 인도네시아 투자 활성화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 국내 은행의 인도네시아 점포 자산 규모는 2018년 말 63.4억 달러에서 지난해 말 132.7억 달러로 급증

반려동물 · 레저 · 날씨 보험 등 소액단기 보험시장 열린다

세계일보

반려동물보험, 레저 · 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1년 이하 단위 계약으로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도입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 개정안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재정

캐롯손보,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자 20만 돌파

파이낸셜뉴스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1월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4개월여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퍼마일자동차보험이 내세우는 탄 만큼만 후불로 결제하는 상품 특성이 MZ세대를 포함한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으로 파악

9월 이후 어쩌나…암호화폐 거래소 대거 퇴출 위기

뉴스1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KB국민 · 하나 ·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사태 책임' 놓고 NH증권-하나은행, 소송전으로 번져

뉴스1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며 비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고객과의 사적 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